

노년 남성의 의복착용 실태조사
— 체형변화와 기성복 만족도를 중심으로 —

김 회 영

우석대학교 의상학과

Clothing Condition of Elderly Men
— Focusing on Somatotype Variation and Satisfaction with Ready-to-Wear —

Hee Young Kim

Dept. of Clothing, Woosuk University

(1997. 10. 15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clothing condition of elderly men focusing on somatotype variation and satisfaction with ready-to-wear and to provide basic data in designing ready-to-wear for the elderly men.

The questionnaire method was used and one-to-one interviews were held for the elderly residents in Seoul, Deajon, Jonju, and Yeosu areas. The total of 275 questionnaires (from 148 elderly men in the 60's, 99 in the 70's and 28 in the 80's) were collected and used for statistics.

SAS package was used for the statistics and the statistics were based on frequency, χ^2 -test, ANOVA, Duncan's multifle range 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1) Height ($p < .05$), weight ($p < .001$) and Rohrer index ($p < .05$) decreased significantly with ageing
- 2) The somatotypes of 75.6% were changed and the 70's & the 80's showed significantly ($p < .05$) higher changing rate compared to the 60's and more changes took place significantly ($p < .001$) with ageing.
- 3) The most preferred out wear was suit & tie and next was jumper or shirt.
- 4) For the mode of getting suit, the highest number 55.3% purchased ready-to-wear, next (32.0%) was tailored and the least (12.7%) neither purchased nor tailored. The percentage of buying ready-to-wear significantly ($p < .01$) decreased with ageing. The main reason for getting tailor-made was not well fitting of ready-to-wear (20.7% out of 32.0%). And for the mode of getting sui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with income ($p < .001$) and pocket money ($p < .01$).
- 5)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suit and shirt were first, size (fitness) and second, comfort

in movement.

6) For the wearing feeling of suit, 55.3% showed discomfor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age ($p < .05$) and pocket money ($p < .05$). The Discomfort increased with ageing and less pocket money.

7) 62.4% answered it uneasy to pick out well fitting & comfortable suit. This showed their dissatisfaction with ready-to-wear.

8) As for the items of not well fitting, 64.4% answered in jacket, 60.8% in trousers, 46.0% in shirt.

The above result shows that elderly men's somatotype changes as they age, suit is found uncomfortable and it's not easy for elders to pick out comfortable ready-to-wear. So, they seem to have a certain dissatisfaction in ready to wear.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reorganization of size and developing pattern design according to measurement of elderly men.

I. 서 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평균수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현대 사회는 노령 인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1990년에 71.4세(남자 67.4세, 여자 75.4세)로 나타났으며 2000년에는 74.3세(남자 71.3세, 여자 77.4세) 2020년에는 77세(남자 74.9세, 여자 79.1세)로 연장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의 비율은 1970년에 5.42%, 1980년에 6.06%, 1990년에 7.14%로 나타났고, 2000년에는 10.64%, 2020년에는 17.60%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 1993).

노년기의 구분에 대하여 세계노인회는 60세 이상의 인구를 노인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Hurlock(1975)은 보편적으로 60세가 중년과 노년을 구분지어 준다고 하였으나 Ryan(1966)은 65세 이상을 노년기로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생산 활동 인구를 60세 이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퇴직연령이 60세이고 60세가 회갑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을 노년으로 간주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중년기를 거쳐 노년기를 맞이하게 된다. 청년기가 되면 성장이 정지하게 되고, 중년기 이후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신장은 감소하며, 지방의 부분적인 침착으로 다양한 체형 분포를 가지게 된다(Phipps, 1977). 더구나 고연령 이

되면 골격의 변형도 함께 나타나 척추의 후만, 측만, 사지관절의 만곡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골격이 크고 근육이 강하게 발달되어 있으며(柳尺, 1976), 여성 신체비례에 비해 목이 짧고 어깨너비가 넓고 엉덩이너비가 좁으며 허리위치는 낮고 상지길이가 길다(정옥임, 1982). 이와 같이 남성의 체형은 상반신 근육발달이 현저하고 신체 전체가 각이 져 있는 역삼각형이며(柳尺, 1976), 연령 증가에 따라서 짧고 굵은 체형으로 변하며(최혜옥, 1990) 흉부횡시수(胸部橫矢示數)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 등으로 인해 체형의 변화가 생겨 가슴부분, 허리부분, 엉덩이부분의 횡시수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함옥상, 1988).

체형은 개인, 성별, 연령, 민족 시대 등에 따라 달라서 특히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적합한 의복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측정된 측정자료가 필요하며(土井サチコ, 1986), 의복의 구성시에도 세분화된 연령층의 체형특징을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한다(최미성, 1993). 그러나 공업진흥청 주관으로 실시된 국민표준체위 조사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체계측이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공업진흥청, 1992) 노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어느정도 찾아 볼 수 있으나 노년남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서 이순명(1993, 1994, 1996)의 의복구성을 위한 노년기 남성의 체형 연구가 있는 정도이다. 노년 이전 연령층을 대상으로한 의복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도 남성에 대한 연구가 여성에 대한 연구보다 현저히 적은 실정이다.

노년기 인구의 수와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사회제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김화영, 1995) 노인 의복의 문제도 노인의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노인 복지의 차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노인에게 있어 잘 맞는 의복이란 사회관계에 대한 적응이나 자아개념의 재확립, 적극적인 자기 이미지 유지와 같은 노화의 사회심리학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함옥상, 1985). 노인에게 있어서 단정한 의복은 약화된 그들의 사회적 권위를 높여주고,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의 인정을 받는데 도움을 주며,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지지의 수단으로써 그 역할이 중요하다(Ryan, 1966·Callis, 1982).

또한 노인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신체미 향상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패션선진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실버마켓(silver market)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이경화, 1995).

실버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60세 이후의 노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계측과 이를 바탕으로 한 패턴 및 사이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지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이며, 설문조사를 통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노년 남성의 체형변화 속성을 파악한다.
- 2) 노년 남성의 의복착용 실태를 파악한다.
- 3) 노년 남성의 기성복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설문지 작성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인 문항 7문항, 체형 변화 여부 8문항, 의복착용실태 10문항, 기성복에 대한 만족도 19문항, 총 4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조사 대상자

조사대상자는 서울과 대전, 전주, 여수의 노인정, 노인학교, 모임 등지에서 만 60세 이상의 노년남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조사는 개인면담으로 행하였다. 조사시기는 1996년 12월 중이었으며, 60대가 148명, 70대가 99명, 80대가 28명으로 총 275명이 표집되었다.

3.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SAS Package를 사용하였고 사용한 통계는 빈도, χ^2 검증,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노년 남성의 체형 변화

<표 1>에서와 같이 키는 60대가 168.99 cm, 70대가

<표 1> 연령에 따른 체격, 수입, 용돈, 생활수준, 체형 변화한 곳 수, 옷 안맞는 곳 수의 차이 검증

항 목	연령	평균	F 값	Duncan's Test
키 (cm)	60대	168.99	4.43*	A
	70대	167.68		AB
	80대	166.07		B
몸무게 (kg)	60대	66.46	12.09***	A
	70대	62.62		B
	80대	59.07		C
Rohrer 지수	60대	1.38	4.22*	A
	70대	1.33		AB
	80대	1.30		B
한달 수입(만원)	60대	210.06	6.64**	A
	70대	153.62		A
	80대	35.71		B
한달 용돈(만원)	60대	73.09	4.02*	A
	70대	64.77		A
	80대	28.32		B
생활 수준*	60대	3.32	0.46	
	70대	3.39		
	80대	3.50		
체형 변화한 곳 수	60대	1.04	7.04***	B
	70대	1.48		A
	80대	1.68		A
옷 안맞는 곳 수	60대	3.34	0.32	
	70대	3.17		
	80대	2.71		

*생활 수준은 상~하까지 1~5로 5점 척도로 응답자가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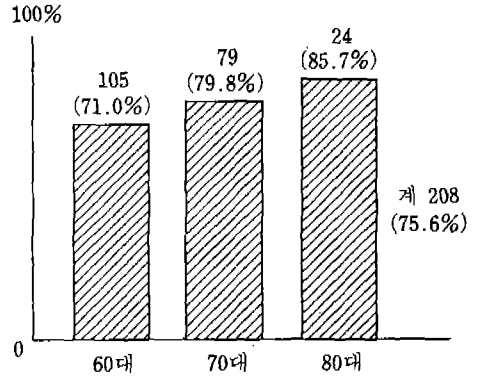
*p<.05 **p<.01 ***p<.001

167.68 cm, 80대가 166.07 cm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의하게 작아졌고, 몸무게도 60대가 66.6 kg, 70대가 62.62kg, 80대가 59.07 kg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의하게 작아졌으며, Rohrer 지수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의하게 작아졌다. 이는 이선명(1996)의 연구에서 70대가 60대보다 신장 및 체중이 작게 나타난 것과 일치되는 결과이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운자·유희숙(1996)의 연구에서 60세 이상에서 연령이 많아질수록 신장과 체중이 작아지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서도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 대까지는 체중이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중년기 이후에 신장은 감소하고 체중은 증가한다고 하는데 노년기에 다시 체중이 감소하는 전환점이 어디인가는 신체계측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체형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전체의 75.6%가 변했다고 답하였다. 연령에 따른 변화는 60대, 70대, 80대의 3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변화율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60대, 70대 이상의 2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표 2>의 χ^2 검증에서와 같이 70대 이상에서 변화율이 더 높은 것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세부체형이 변한 정도는 [그림 2]에서와 같이 키가 줄었다가 33.1%, 말랐다가 32.7%, 뚱뚱해졌다(배가 나왔다)가 22.2% 순이고 나머지 어깨, 등, 허리, 다리는 10% 미만의 변화율을 보였다. 체형이 변한 곳의 수는 <표 1>에서와 같이 ANOVA 및 Duncan's Test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곳이 변하였다.

2. 노년 남성의 의복착용 실태

외출시 주로 입는 옷은 [그림 3]에서와 같이 넥타이를 맨 양복 정장이 47.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잠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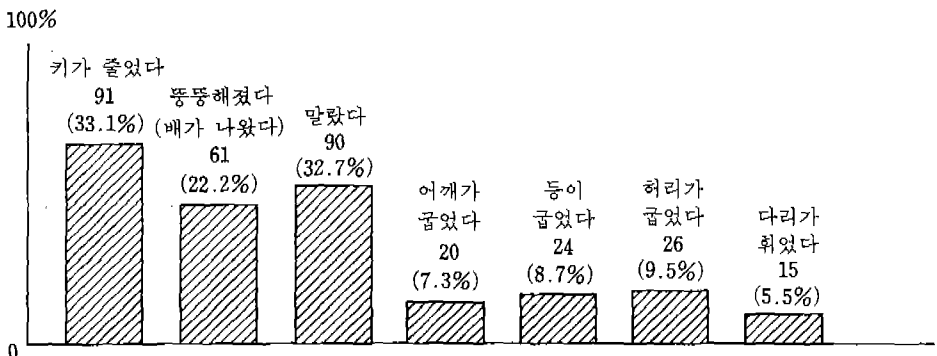


[그림 1] 연령에 따른 체형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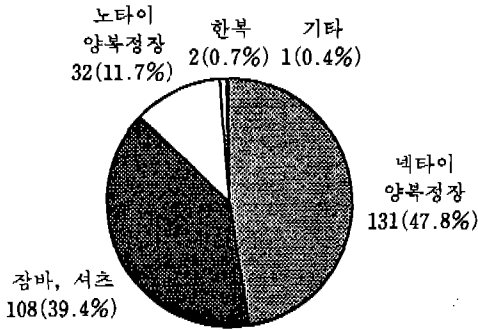
<표 2> 연령에 따른 체형 변화의 차이 검증

연령	체형변화 여부		계 (%)
	변했다	변하지않았다	
60대	105 31.18 (70.95)	43 15.64 (29.05)	148 53.82 (100.0)
70대 이상	103 37.45 (81.10)	24 8.73 (18.90)	127 46.18 (100.0)
계	208 75.64	67 24.36	275 (100.0)

$\chi^2=3.826^*$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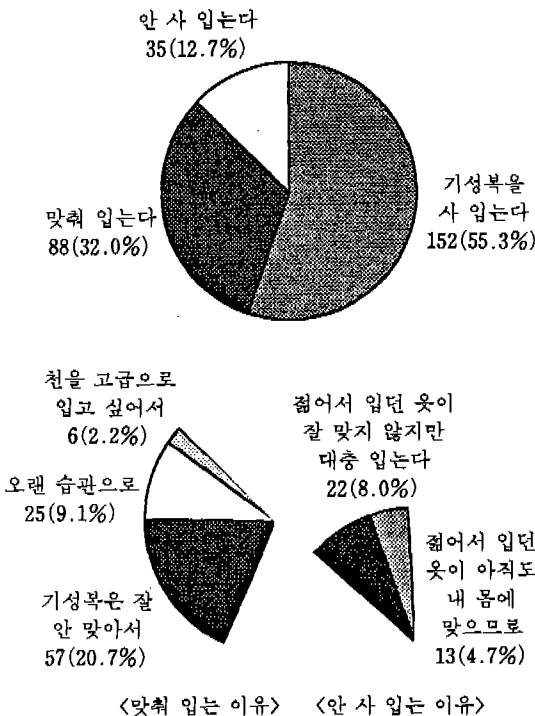


[그림 2] 부분 체형의 변한 비율



[그림 3] 외출시 주로 입는 옷

나 셔츠로 39.4%를 나타냈다. 잠바나 셔츠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아 노년 남성들이 편안한 옷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정장 차림을 가장 많이 한다는 것은 정장에 대한 구매력이 있다는 것에 실버산업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림 4] 양복 정장을 장만하는 방법과 그 이유

양복 정장을 장만하는 방법은, [그림 4]에서와 같이 기성복을 사 입는다가 55.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맞춰 입는다(32.0%), 안 사 입는다(12.7%) 순으로 노년 남성도 반 이상이 기성복을 사 입는다는 것을 볼때 실버산업측면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본다. χ^2 검증에서는 <표 3>에서와 같이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연령이 낮을수록 기성복을 사 입는 비율이 높아 60대가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59.86%), 연령이 높을수록 안 사입는 비율이 높아 80대가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29.63%). <표 4, 5>에서와 같이 수입과 용돈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 수입과 용돈이 적을수록 안 사 입는 비율이 뚜렷이 높았다.

맞춰 입는 이유는 기성복은 잘 안 맞아서가 32.0% 중 20.7%로 가장 높고, 그냥 오랜 습관으로, 천을 더 고급으로 입고 싶어서 순이었는데 기성복의 발전을 위해서 기성복은 잘 안 맞아서 맞춰 입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장을 안 사 입는 이유로는 젊어서 입던 옷이 잘 안 맞지만 대중 입는다가 8.0%로 젊어서 입던 옷이 아직도 내 몸에 맞으므로의 4.7%보다 높았다. 젊어서 입던 옷이 잘 맞지 않지만 대중 입는다는 것은 경제력이 없음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젊어서 입던 옷이 잘 안 맞는다는 것과 기성복은 잘 안 맞아서 맞춰 입는다는 것에 주목하여 노년남성의 신체계

<표 3> 연령에 따른 양복 정장 장만 방법의 차이 검증

연령	방법	기성복을 사 입는다	맞춰 입는다	안사입는다	계 % (%)
60대	인원	88	50	9	147
	비율 (%)	32.23 (59.86)	18.32 (34.01)	3.30 (6.12)	53.85 (100.0)
70대	인원	54	28	17	99
	비율 (%)	19.78 (54.55)	10.26 (28.28)	6.23 (17.17)	36.26 (100.0)
80대	인원	10	9	8	27
	비율 (%)	3.66 (37.04)	3.30 (33.33)	2.93 (29.63)	9.89 (100.0)
계	인원	152	87	34	273
	비율 (%)	55.68	31.87	12.45	100.0

$\chi^2=15.6978^{**}$ ** $p < .01$

<표 4> 수입에 따른 양복 정장 장단 방법의 차이 검증

수입 (만원)	방법	기성복을 사입는다	맞춰입는다	안사입는다	계 % (%)
0		36 13.19 (42.86)	27 9.89 (32.14)	21 7.69 (25.00)	84 30.77 (100.0)
1~100		41 15.02 (62.12)	16 5.86 (24.24)	9 3.30 (13.64)	66 24.18 (100.0)
101~200		32 11.72 (52.46)	26 9.52 (42.62)	3 1.10 (4.92)	61 22.31 (100.0)
201 이상		43 15.75 (69.35)	18 6.59 (29.03)	1 0.37 (1.61)	62 22.71 (100.0)
계		152 55.68	87 31.87	34 12.45	273 100.0

$\chi^2=28.068^{***}$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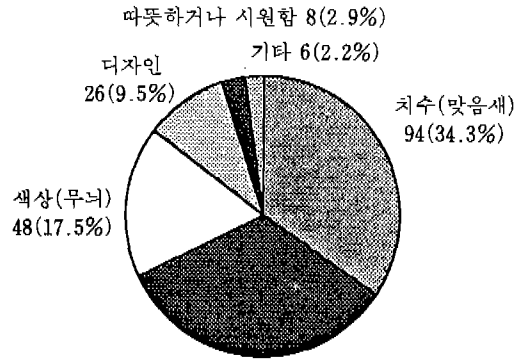
<표 5> 용돈에 따른 양복 정장 장단 방법의 차이 검증

용돈 (만원)	방법	기성복을 사입는다	맞춰입는다	안사입는다	계 % (%)
1~25		53 19.41 (58.24)	19 6.96 (20.88)	19 6.96 (20.88)	91 33.33 (100.0)
26~50		55 20.15 (50.46)	43 15.75 (39.45)	11 4.03 (13.64)	109 39.93 (100.0)
51 이상		44 16.12 (60.27)	25 9.16 (34.25)	4 1.47 (5.48)	73 26.74 (100.0)
계		152 55.68	87 31.87	34 12.45	27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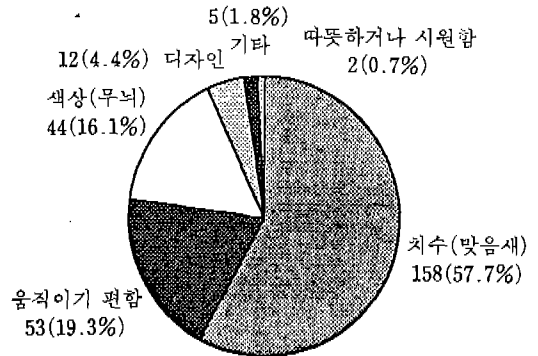
$\chi^2=14.988^{**}$ ** $p<.01$

측을 통해 체험 파악을 하고 체형에 따른 원형과 정장 패턴 그리고 사이즈 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양복 정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그림 5]에서와 같이 치수(맞음새)가 34.3%로 가장 높고 다음이 움직이기 편함으로 33.6%이고, 다음은 색상(무늬), 디자인, 따뜻하거나 시원함, 기타 순이었다. 노년 남성들은 정장에서 치수(맞음새)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림 5] 양복 정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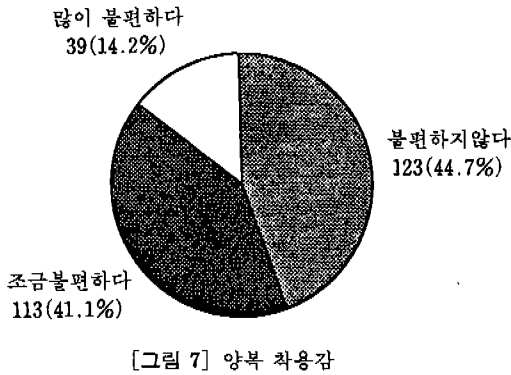


[그림 6] 와이셔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서도 그에 못지 않게 움직이기 편함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를 원형, 정장 패턴 연구에 반영해야 하리라 본다.

와이셔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그림 6]에서와 같이 첫째가 치수(맞음새)로 57.7%여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이 움직이기 편함, 색상(무늬), 디자인, 기타, 따뜻하거나 시원함 순이었다. 면담에 의하면 치수(맞음새)의 중요도로는 첫째로 칼라의 목둘레를 들었고 다음이 소매길이었다.

양복 정장의 착용감은 [그림 7]에서와 같이 불편하지 않다가 44.7%, 조금 불편하다가 41.1%, 많이 불편하다가 14.2%로 55.3%가 불편하다고 하였다. 양복 정장을 어떻게 제작하면 노년남성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입을 수 있을까가 연구과제라고 본다. <표 6>에서와 같이 양복 정장 착용감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불편하다고 하였고 연령이 낮을



<표 6> 연령에 따른 양복 정장 착용감의 차이검증

연령	착용감			계 % (%)
	많이 불편하다	조금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	
60대	15 5.45 (10.04)	62 22.55 (41.89)	71 25.82 (47.97)	148 53.82 (100.0)
70대	15 5.45 (15.15)	44 16.00 (44.44)	40 14.55 (40.40)	99 36.00 (100.0)
80대	9 3.27 (32.14)	7 2.55 (25.00)	12 4.36 (42.86)	28 10.18 (100.0)
계	39 14.18	113 41.09	123 44.73	275 100.0

$\chi^2=1.986^*$ * $p < .05$

수족 불편하지 않다고 하였다. 착용감은 용돈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 <표 7>에서와 같이 용돈이 적을수록 많이 불편하다고 하였고 용돈이 많을수록 조금 불편하고 또 불편하지 않다고 하였다. 용돈은 그 사람의 경제력을 뜻하므로 경제력이 클수록 양복정장을 입을 기회가 많아 자주 착용하게 되므로 습관화되어서 불편함을 덜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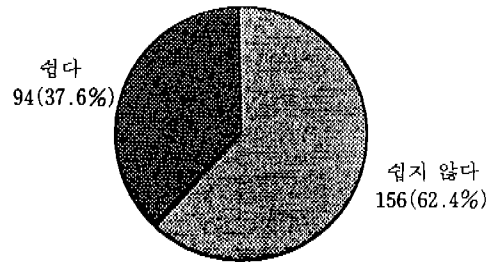
3. 노년 남성의 기성복에 대한 만족도

이후부터 기성복을 사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하였다. 몸에 잘 맞으면서도 편안한 정장을 고르기 쉬운가의 질문에는 [그림 8]에서와 같이 62.4%가 쉽지 않다고 답하였고 37.6%가 쉽다고 답하였다. 면담에 의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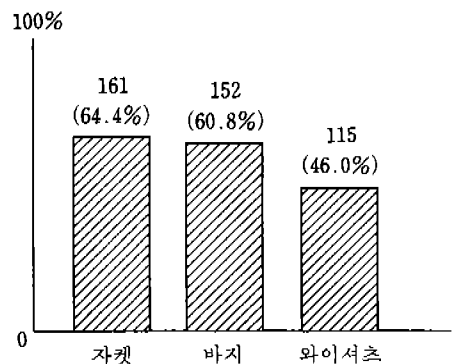
<표 7> 용돈에 따른 양복 정장 착용감의 차이검증

연령	방법			계 % (%)
	기성복을 사입는다	맞춰입는다	안사입는다	
1~25	21 7.64 (22.58)	42 15.27 (45.16)	30 10.91 (32.26)	93 33.82 (100.0)
26~50	9 3.27 (8.26)	44 16.00 (40.77)	56 20.36 (51.38)	109 39.64 (100.0)
51 이상	9 3.27 (23.33)	27 9.82 (36.99)	37 13.45 (50.68)	73 26.55 (100.0)
계	39 14.18	113 41.09	123 44.73	275 100.0

$\chi^2=13.078^*$ * $p < .05$



[그림 8] 맞는 옷 고르기 쉬운 정도



[그림 9] 아이템별 안 맞는 비율

회사마다 사이즈가 달라서 불편하다고 하였다. 기성복에 상당한 불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성복에서 잘 안 맞는 곳을 자켓, 바지, 와이셔츠 별로 질문하였는데 자켓의 잘 맞는 정도는 [그림 9]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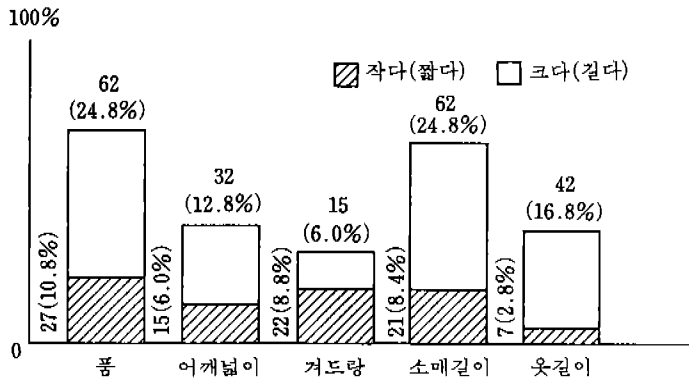
서와 같이 잘 안 맞는 곳 있다가 64.4%나 되었고 잘 안 맞는 곳 없다가 35.6%였다. 세부항목의 맞는 정도는 [그림 10]과 같이 품과 소매길이가 가장 잘 안 맞는 곳으로 지적되었다. 전반적으로 작다보다는 크다가 많은데 요즈음 기성복이 젊은 사람 위주로 넉넉하게 만들어지는데 반해 노년남성들은 예전의 딱 맞는 맞춤복에 길들여 졌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체격이 점점 작아지는 노년 남성의 사이즈를 생각하지 않고 젊은 사람 위주로 옷을 제작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바지의 잘 맞는 정도는 [그림 9]에서와 같이 잘 안 맞는 곳 있다가 60.8%로 큰데 안 맞는 곳 없다는 39.2%였다. 세부항목의 맞는 정도는 [그림 11]과 같이 서 바지길이가 길다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바지 단을 미완성 상태로 놓았다가 매장에서 줄여주는 현 판매방법 하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나 정확한 계측에 의한 정확한 사이즈 체계를 수립하면 이 방법도 개선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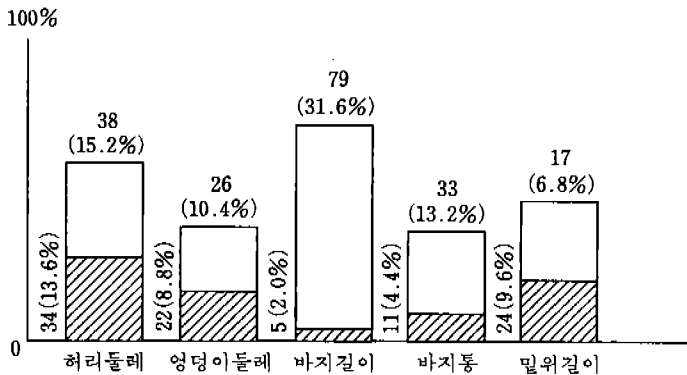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음에 허리둘레가 크다고 나왔는데 면담에 의하면 바지허리가 자꾸 내려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벨트를 조이는 것도 불편하고 벨빡을 매는 것도 불편하다고 하였다. 노년 남성들을 위한 폴러내리지 않는 바지 허리도 연구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와이셔츠의 잘 맞는 정도는 [그림 9]에서와 같이 잘 안 맞는 곳 있다가 46.0%로 정상 상하의보다는 조금 작다. 즉 자켓이 가장 잘 안맞고 그 다음 바지가 잘 안 맞고 그 다음이 와이셔츠인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항목 의맞는 정도는 [그림 12]에서와 같은데 목둘레가 가장 안 맞고 그 다음 소매길이가 안 맞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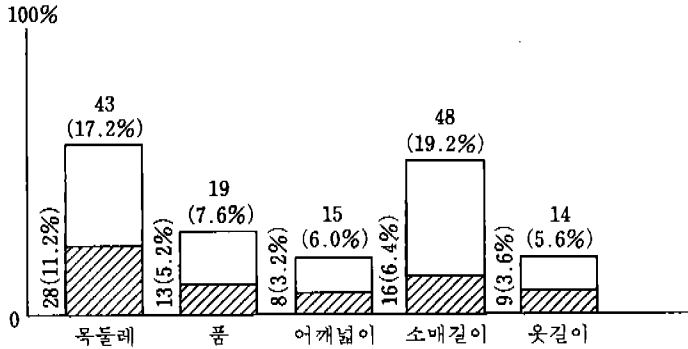
각 아이템별 잘 안 맞는 곳 개인별 합계에서는 자켓, 바지, 와이셔츠 모두 하나에 포함한 사람이 가장 많고 다섯 곳까지 점점 줄어들었다. 그래서 총 개인별 합계에서도 세 곳에 포함한 사람이 가장 많고 열 다섯 곳까지 점점 줄어들었다.



[그림 10] 자켓 세부 항목의 안 맞는 비율



[그림 11] 바지 세부 항목의 안 맞는 비율



[그림 12] 와이셔츠 세부 항목의 안 맞는 비율

III. 결 론

노령 인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노인 복지를 위한 여러가지 사회제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노인 의복의 문제도 노인 복지의 차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노년남성을 대상으로 맞춤새 및 착용감이 좋은 기성복 제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 우선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체형변화와 기성복에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의복착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질문지법을 사용하였고 서울, 대전, 전주, 여수에 거주하는 노년 남성을 대상으로 개인면담을 행하였으며 60대 148명, 70대 99명, 80대 28명이 표집되어 총 275부의 질문지가 통계에 사용되었다.

통계분석은 SAS Package를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통계는 빈도, χ^2 검증,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키, 체중, Rohrer 지수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의하게 작아졌다.

2) 체형은 60대와 70대 이상의 두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70대 이상에서 변화율이 높은 것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분체형의 변화율은 키가 줄었다(33.1%)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말랐다(32.7%)였다. 세부체형이 변한 곳의 개인별 합계는 연령이 높을수록 변한 곳이 많은 것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3) 외출시 주로 입는 옷은 넥타이를 맨 양복 정장이었다.

4) 양복 정장을 장만하는 방법은 기성복을 사 입는다가 55.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맞춰 입는다(32.0%), 안 사입는다(12.7%) 순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기성복을 사 입는 비율이 높았고, 수입과 용돈이 적을수록 안 사 입는 비율이 높았다. 맞춰 입는 이유는 기성복이 잘 안 맞아서가 가장 높고 안 사 입는 이유는 젊어서 입던 옷이 잘 안 맞지만 대중 입는다가 높았다.

5) 양복 정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치수(맞음새)가 34.3%로 가장 높고 다음이 움직이기 편함(33.6%)이었으며, 와이셔츠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은 첫째가 치수(맞음새)가 반 이상을 차지하여 57.7%였고 다음이 움직이기 편함이었다.

6) 양복 정장의 착용감은 55.3%가 불편하다고 답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불편하였고 용돈이 적을수록 많이 불편하였다.

7) 몸에 잘 맞으면서도 편안한 정장을 고르기 쉬운가에서는 62.4%가 쉽지 않다고 답하였다.

8) 기성복이 잘 안 맞는 곳을 자켓, 바지, 와이셔츠 별로 질문하였는데 자켓에서는 64.4%가 잘 안 맞는 곳 있다에, 바지에서는 60.8%가 잘 안 맞는 곳 있다에, 와이셔츠에서는 잘 안 맞는 곳 있다에 46.0%가 답하였다.

여기서 노년 남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체형이 많이 변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 조사는 설문 응답자의 응답을 근거한 것이므로 이 결과를 확대해석하는 데는 주의를 요한다. 의복의 구성시에는 세분화된 연령층의 체형특징을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노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실버 시장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 주도로 광범위한 노년남성에 대한 계측과 체형 분석이 이루어져

야 한다.

의류사 주로 정장을 입고 주로 기성복을 사 입는다는 점에서 의류업체 입장에서 노년남성이 중요 고객임을 알 수 있다. 어패럴 마케팅이 전문화, 세분화되어가는 점을 반영하여 노년 남성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전문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전문브랜드를 통해 노년 남성에게 구매기회를 증가시켜 주고 선택의 범위를 넓혀 주어야 한다. 수입과 용돈이 적을수록 안 사 입는 비율이 높고 젊어서 입던 옷이 잘 안 맞지만 대충입는다는 점은 경제력과 구매력의 깊은 관계를 뜻하므로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개발하고 증거가 브랜드를 창출한다든가 하여 모든 노년 남성에게 선택의 범위를 넓혀 주어야 한다.

기성복의 치수(맞음새)와 움직임이 편함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성복의 치수 체계에 신체의 형태적 요소를 반영하고 세분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년 남성에 대한 광범위한 신체계측을 통해 매우 다양한 체형들을 형태적으로 유형화하여 특징적인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며 그 집단 내에서 다시 치수규격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복이 불편하며 편안한 옷을 고르기가 쉽지 않고 잘 안 맞는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체형을 유형화하고 치수규격을 설정한 다음에는 보다 편안한 정장이 되도록 각 아이템별 원형과 디자인 패턴을 연구하여야 한다. 또 타겟을 세분화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편안하게 해 주고 경제력이 없을수록 즉 증거가 브랜드일수록 편안한 옷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노년 남성만을 대상으로 했고 젊은 남성과 비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년 남성이기 때문에 더 불편한 건지 젊은 남성도 그만큼은 불편한 건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는 주의를 요한다.

참 고 문 헌

- 1) 공업진흥청(1992), 산업제품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 표준체위 조사 보고서,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1992
- 2) 김경화(1995), 노년 여성 체형의 유형화 및 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화영(1995), 노인의 영양과 건강, 한국온열환경학회, 제1회 한일 합동 심포지엄, 고령자와 생활환경

- 4) 남윤자·유희숙(1996), 노인계층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I) — 노년여성의 연령 및 체형별 신체 만족도와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 —, 한국의류학회지, 20(6)
- 5) 유신정(1989), 의복구성을 위한 20대 남성의 체형분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이선명(1993), 의복구성을 위한 노년기 남성의 체형 연구(I) — 상반신에 대하여 —, 한양여자 전문대학 논문집, 제16집
- 7) 이선명(1996), 의복구성을 위한 노년기 남성의 체형 연구(II) — 지수치를 이용하여 —, 한양 여자 전문대학 논문집, 제19집
- 8) 이은실·이명희(1995), 노년기 여성의 라이프스타일과 의복관여에 관한 연구, 복식, 제25호
- 9) 이경화(1995), 노년 여성의 흉부형태분석 및 브래지어 치수규격 설정에 관한 연구
- 10) 정옥임(1982), 의복의 동작적합성에 관한 인간공학적 연구 — 상지동작에 의한 피부신축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제20권 3호, pp. 1-8
- 11) 최미성, 김옥진(1983), 체형균형화를 위한 파운데이션 가먼트 제작에 관한 연구 — 장년층 여성을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17(2)
- 12) 최혜옥(1990), 의복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 남성복 상의를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통계청(1993), 한국통계연감
- 14) 한국의류학회(1994), 의류용어집
- 15) 함옥상(1985), 한국노인의 의복구성을 위한 체형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함옥상(1988), 노인의복의 기능성에 관한 인간공학적 연구(1), 계명대 과학논집, Vol. 14
- 17) 柳尺燈子(1976), 被服構成學, 東京, 光生官 pp. 14-27, 122-133
- 18) 川仲昌子(1981), 高齢人體の被服に關する研究, 日本家政學雜誌, Vol. 32, No. 9, pp. 673-678
- 19) 土井サチヨ(1986), 體型と被服, 日本, 同文書院
- 20) Callis c. (1982), Appearance Program with Female Chronic Psychiatric Hospital Patients: A Comparison of Six-week and Nine-week Treatment Interven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48(4)
- 21) Hurlock, E.B. (1975), Development Psychology, N. Y., McGraw-hill Book Co
- 22) Phipps, G.A. (1977), Clothing Design for Handicapped Elderly Woman, Journal of Home Economics, September, 69(4)
- 23) Ryan, M.S.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lt, Rinehart & Winston, Inc.